

서울대학교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02	I. 시작하며	02~03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03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04	II.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04~08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04		
서류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05	III. 행복한 학생, 건강한 학교	09~25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외 소양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09	IV.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26~28
- 도전하는 학생			
-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16	V. 선배가 전하는 글	29~35
제출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18		
-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소개자료			
상상이 일상이 될 때까지	29	VI. 맺는 글	36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대로 보여주면 끝	31		
자신의 길을 걸어라	33		
서울대학교는 여러분들과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36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입니다.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학업능력과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나 ‘진취성’이란 단어가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께는 너무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몇 점 또는 내신 몇 점의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 여러분을 점수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성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각 전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2015학년도에 실시하는 전형들입니다.

수시모집

- 지역균형선발전형
- 일반전형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 일반전형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위 전형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즉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입니다.

구분	전형 명칭	전형 소개	전형 요소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입학생의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일반전형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원 외 전형)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높은 성취를 이룬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으로 저소득 가구 학생과 농·어촌 지역 학생,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는 농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정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정원 외 전형)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다양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전형 방식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학생의 학업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평가체계와 평가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은 모집 인원의 75% 이상을 선발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편리한 선발 방식입니다. 그러나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하는 대학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을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로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의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 중심으로 고등학생 생활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시 환경은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도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류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서류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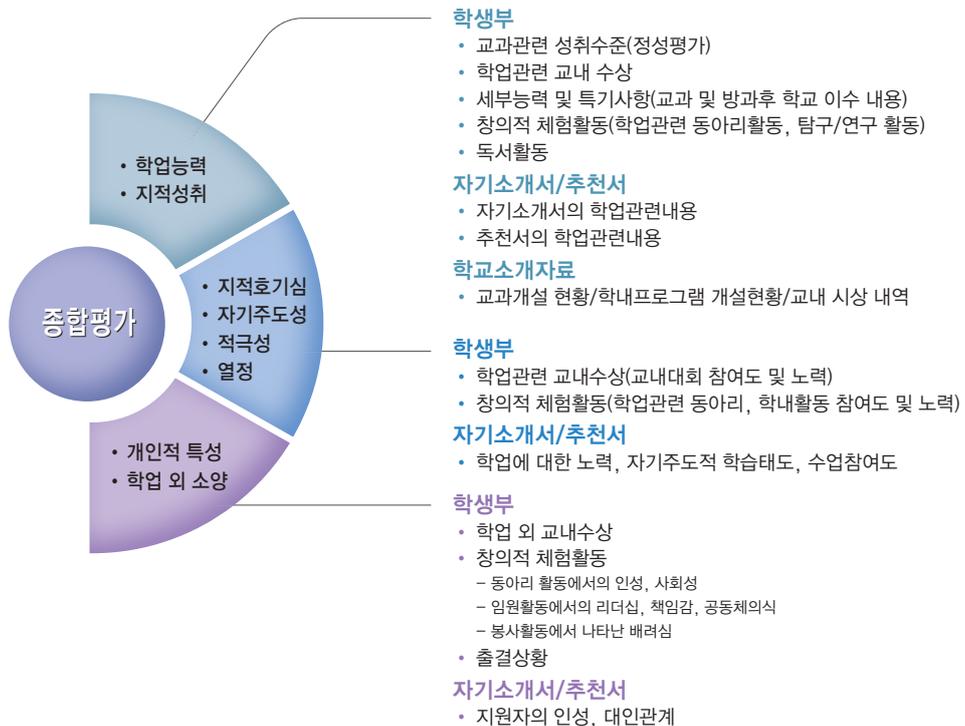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에서는 서류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면접대상자로 선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26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109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평가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평가하나요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 때, 한 가지 서류나 항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II.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예를 들어,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갖춘 학생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수업 참여도와 교과 수업 선택 내역, 교내 대회 참여도, 학업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 제출 서류상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의 서류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취도, 교내 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 학업능력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능력입니다.

학생의 학업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더 이상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학내 탐구 활동, 교내 경시대회, 독서활동, 방과 후 수업,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학교소개자료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 후 활동, 시상 내용, 재학생 수 등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 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학업관련 활동), 학업관련 탐구 및 연구 활동,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 교과 성적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 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동일한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적을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지원자의 학업능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자가 4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14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학업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 분포,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학년별 성적 변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학년	학기	과목	이수단위	등급	인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1	1	000	3	1	400	98	71.2	15.4
2	2	000	2	3	14	94	89.2	4.6
3	1	000	2	우수	-	-	-	-

• 교내 수상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거둔 경우 해당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경시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학교마다 상이하게 시상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수상의 유무나 양이 아니라 참가대상, 수상인원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 안에서 수상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또한 수상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교내 경시대회에 참여한 노력과 학습한 내용이 서류에 드러날 경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상명	참가 대상	수상 인원
A	우수상	2학년 자연계열	대상(3명), 최우수상(5명), 우수상(7명), 장려상(10명)
B	우수상	1~3학년 전학년 대상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4명)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 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교재와 수업방식(토론, 발표 등),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이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며, 이 부분에서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이 지닌 우수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 탐구/연구 활동 등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탐구/연구 활동이 가능한 학교가 있지만 전국에는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매우 많습니다. 탐구/연구 활동 경험의 유무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평가합니다.

•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 지표와 교내 경시대회 수상내역, 동아리 활동 등이 결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결과'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 활동 시간과 활동 내용 등 결과적인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영어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동아리 참여 전과 후의 자신의 학업능력 관련 변화된 부분을 기술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은 이 부분에서 학생의 영어관련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학업태도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및 진취성 등을 평가 시 고려합니다.

위와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은 물론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연구 활동, 실험 수업, 교내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업관련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업태도를 보여왔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학업 외 소양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을 통해 지원자가 지닌 성품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 이외의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 봉사활동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원 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원 활동의 횟수보다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하며, 봉사활동 역시 봉사활동의 양이 아닌 활동 내용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 서울대학생 여러분! 그럼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궁금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교 입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대학교 생활을 넘어 미래의 '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3년은 내 인생에서 없는 기간이야'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3년간의 시간. 내가 그리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활동, 어떤 공부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 도전하는 학생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회에 도전했었나요?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의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마주치게 될까요?

✓ 교과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내용 이해보다 문제풀이 요령을 연고자 하지는 않았나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는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합니다.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 봅시다.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고해 보며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으로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 갑시다.

내게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은 대학생생활을 넘어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입니다.

✓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창의적 지식 공동체를 엮어가기 위한 서울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업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 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와 종류의 활동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활동을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다양한 학습 활동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나의 학업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수업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충분히 연습해 봅시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실험·실습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론 학습을 통해 지식을 쌓고,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수업에서 보여준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고, 입학사정관은 이곳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학습 활동을 파악하고 어떻게 역량을 계발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예비 서울대학생 여러분! 도전의 기회, 의미 있는 학교생활,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공부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교과 수업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 교과서,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자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다고들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의 실력과 역량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길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비 학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탐구활동, 그룹 수행 과제, 토론 활동, 글쓰기 등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대회와 행사도 있습니다. 교내 대회 참여 종류나 횟수, 수상 등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상 기회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우수한 학생들이 교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땀과 열정을 나누는 활기가 넘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교에서 학업활동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기회는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업 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만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이루었는지입니다.

✓ 예비 서울대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 사회,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과 상의 하여 선정할 수 있고 토론 활동, 주제탐구 활동에 읽은 책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서 선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 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 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의 힘을 키운 학생을 기다립니다.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보세요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 우리끼리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미숙한 듯한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 분야와 관련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 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여러분 앞에 펼쳐진 배움의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합시다. 공부의 재미와 맛에 푹 빠져봅시다. 아직 그런 맛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과 친해져 보세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을 서울대학교가 기다립니다.

■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무엇으로 가득차 있나요? 여러분의 소양은 학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다져집니다.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하는 예비 서울대학생 여러분이라면 열정을 담은 학교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도 갖추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생활은 학습을 통해 지적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며 아울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습 활동 외에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채울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있습니다.

체험·현장학습,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열정을 나타낸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 그 열정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교과 외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폭넓은 소양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의식, 배려심,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기 바랍니다.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의 경우도 가까운 친구,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부터 찾아 실천해 봅시다. 처음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와 실천한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의미 없이 채워진 수백 시간의 봉사실적 보다는 여러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진심을 다한 활동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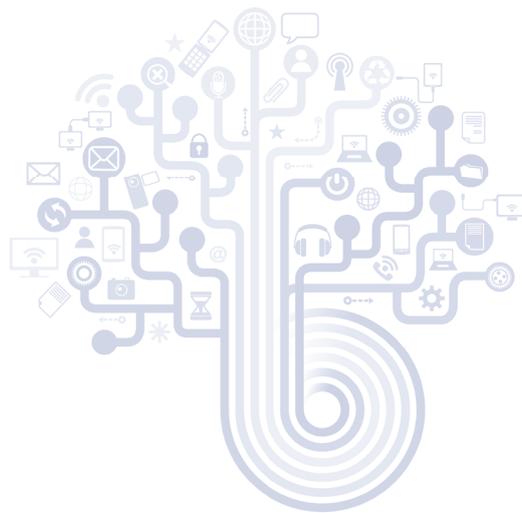
“리더십? 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데……”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장, 부반장 임명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 학교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수업 중 그룹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토론 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동아리 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하여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공동체 활동, 협동학습 등 학내 활동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들며, 이러한 소양은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서울대학교는 깊이 있는 지적 훈련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적절한 과제 수행 기회를 부여하여 학습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시야로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세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갖춰나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 교실 안에서 학생의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그리고 지적 성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개인의 특성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재능과 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 및 과제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분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규 수업의 충실한 학습 활동이 기본이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업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탐구 심화 학습 활동을 학교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학생들은 큰 힘과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적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학교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업 외 활동도 지원해 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지닌 구성원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학생들은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생활 태도와 리더십, 사회성을 다지는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활동이 학생의 잠재력, 인성, 소양을 키우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같은 교과목의 수업이라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수업 내용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꼼꼼히 읽으며 교실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은 어떤 소양을 키우고 발휘해 왔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학생 개개인마다의 학습 활동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무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 학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특징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요약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을 속속들이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과목 수업에 임하는 자세, 수업에서 보인 적극성, 학업 소양과 특성 등 선생님들이 보신 그대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내대회(수상 기준) 등을 소개해 주시면 학생들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 가치관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충실히 노력한 학생이라면 대학 입학 시 진로가 변한다 해도 그 동안 쌓아온 학생의 역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다른 곳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을 의지하며 목표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은 수업만 담당하고,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만 진학에 관심을 갖는 단절된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늘 진학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모두가 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학상담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진학상담을 위해 사교육기관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와 직접 소통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은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믿고 담임선생님 또는 진학지도 선생님과 진학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기 바랍니다. 또는 학교에 진학정보실이 마련되어 언제든지 학생들이 자주 찾고 들러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제출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소개자료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전형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제출서류들의 모든 내용을 분석·종합하여 학생이 지닌 우수한 면모를 파악합니다.

■ 자기소개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자신의 학교생활을 입학사정관들에게 직접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중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했던 공부 경험과 공부 방법
-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
- 열심히 노력해온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류평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특성을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어갑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 모습을 담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만의 모습을 나만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학에 지원하는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기간을 돌아보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일입니다. 내가 그 동안 열정을 쏟아왔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내가 노력해왔던 많은 일들과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는지를 기록해 봅시다.

✓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나만의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되도록 나만의 생각과 문체로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것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침묵하여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는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나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 경력을 단순히 나열하여 대회명, 수상 일시, 수상 등급 등을 적는데 그치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지원자의 특성, 자질, 노력 등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비슷한 경험이나 비슷한 수상실적이라도 자신이 노력한 과정 속에서 깨우친 내용이나 성장한 내용 등 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지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기간 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을 연대순으로 늘어놓거나 가족관계를 길게 나열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지원자의 성격이 형성된 배경 등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학업능력을 확인하고 우리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므로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기소개서 “NG” 예시

저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교과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국어와 수학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으며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와 수학 경시 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 경시반 활동을 하였습니다. 2학년 때부터 해왔고 친구들 6명이 수학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저는 1학년 때부터 학교 공부에 전념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모든 공부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여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들으려 노력했고 예습보다는 복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학교 공부와 더불어 독서는 저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독서를 통해 저는 수업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황석영님의 ‘오래된 정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원래 영화 제목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읽는 내내 단숨에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주인공 남녀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역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 후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 이 책을 주제로 쓴 글이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과목 중에서 수학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친구들 6명이 수학경시반을 만들어서 활동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주제를 정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수학 가운데 미적분은 어려우면서도 수학적 사고가 여러 방면에 응용된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이 수학경시반 활동은 문제 풀이보다는 수학의 원리와 기본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토론과 다양한 독서에 매진했던 노력이 교내 수학경시대회 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주세요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특성이나 자질 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 등을 바탕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주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사실과 나의 생각을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나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문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문구로는 입학사정관에게 ‘나’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반장 역할을 잘 해냈다”,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경력보다는 임원 활동의 계기나 동기,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경험, 이를 통해 향후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소개서 “NG” 예시

2학년 학급 부반장: 저는 리더십과 봉사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학년 부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한 결과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2학년 때 처음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반장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서운하기도 하였지만, 반장을 도와서 학급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학급 친구들끼리 ‘하루 한 번씩 칭찬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초 계획과는 다소 다르게 되었지만,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생각의 차이가 매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학년 도덕 시간에는 그룹 프로젝트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육아에 대한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6명의 조원과 함께 지역 어린이집과 여성 단체를 방문하고 인터뷰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조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각 조원의 역할 분담과 진행 일정을 세분화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반에서 최우수 조가 되었을 때는 큰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 추천서

선생님들께서 그 동안 가르친 제자들을 서울대학교에 구체적인 언어로 소개하는 자료가 추천서입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3년간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분들이 선생님이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소양을 가장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 주세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 평소 지원자를 관찰해 왔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추천인이 추천서를 작성해야 미사여구만 이어지는 의미 없는 추천서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인사에게 추천서를 받는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자의 성격, 교육 환경, 잠재력, 고등학교 생활 전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 다시 추천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 경력을 단순 나열하거나, 교과 성적을 추천서에 다시 강조하여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추천서야말로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자료입니다. 추천서는 다른 자료로는 보여줄 수 없는 지원자의 인성, 학업관련 특성, 장점/단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를 기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매우 떨어졌을 때 지원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지원자의 학업능력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추천서 “NG” 예시

지원자는 학업능력이 우수합니다. 지원자는 1학년 1학기 때 국어, 수학, 사회, 미술에서 1등급 받았고, 1학년 2학기 때에도 국어, 수학, 미술, 기술가정, 음악, 영어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학년 1학기 때에는 한국지리, 경제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고 2학년 2학기 때에는 사회문화를 제외하고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원자는 봉사성이 우수합니다. 3년간 학교에서 50시간이 넘게 봉사활동을 하였고 학교 밖에서도 30시간이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원자는 리더십이 우수합니다. 1학년 2학기 부반장, 3학년 1학기 반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교우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 수려한 문장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추천서는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할 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평가에 도움이 되는 추천서는 문장이 수려한 추천서가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추천서입니다. 지원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를 읽는 입학사정관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어떤 내용을 찾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에 대해 진솔하게 서술해 주세요

지원자에 대한 칭찬만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저히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쓰이거나, 함께 추천서를 써주시는 같은 학교 모든 학생들에 대해 봉사성이 우수하다고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천서 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지원자를 평가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NG” 예시

지원자는 봉사성과 리더십이 매우 우수합니다. 비록 학교 공부에 신경을 쓰느라 봉사활동이나 임원 활동, 또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지원자의 봉사성과 리더십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례로 들 만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원자의 봉사성과 리더십이 훌륭하다는 점은 제가 보증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무엇일까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교생활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법은 교육부가 정하는 지침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술 내용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 학습 경험과 학생 개인별 경험의 기록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항목 중 하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입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교과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과 수업 중에 나타낸 소양, 노력 등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인 개개인의 노력과 우수성, 발전한 모습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장황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면 간주려서 주로 학교소개자료에 기록해 주시고, 학생 개개인이 특징적인 학업소양을 보인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선별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활동 상황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사항은 학교소개자료에 기록해 주시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소양, 개별적인 경험이나 노력이 나타나도록 작성 해주셔야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들을 오랜 기간 관찰한 후 선생님의 관점에서 학생에 대한 판단이 기술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수하다고 여기는 인재를 서울대학교에서도 선발하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기록해 주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 학교소개자료

학교소개자료는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에게 주어진 기회와 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는 동안 어떤 교육과정이 제공되었는지, 교내 학업 및 학업 외 활동의 기회는 얼마나 제공되었는지, 학생 선택의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얼마만큼 노력해왔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이 속해있던 교육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학교소개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학교소개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환경 및 학교 환경 개관
- 신입생 선발 방식
- 교육과정 편성 현황
- 특색사업(심화 프로그램, 체험 활동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등)
- 학업성취도 분포 현황
- 교내 시상 내역
- 평가 방식
- 교과 외 영역 관련 활동 내용 등

✓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학습 환경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학교소개자료를 별도로 구성하기 어렵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할지 몰라 학교교육계획 파일 전체를 학교소개자료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소개자료에는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당 학교만의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해당 고교의 신입생 구성 특성 및 선발 방식, 작년 대비 달라진 학교 현황, 특별한 지역여건, 특색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특징적인 교과 수업내용이나 교내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는 정보를 담아주세요

학교소개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여 지원자의 교과, 교과 외 영역에 대한 보충자료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업의 운영방식이나 교재, 평가 방식,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과 수강자 구성 방법 등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해당 고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지원자가 경험한 학업 및 학업 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고 보다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원한 학생이 참여한 활동에 대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는 단순히 교내 OO탐구발표대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으나 학교 소개자료에 대회의 참여자 선정 과정, 탐구 절차, 참여 인원, 결과물 등에 대해 소개되어 있다면 해당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그릇된 정보들을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바로 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교외 수상 실적 등 소위 스펙이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 아닌가요?

진실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상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노력한 학업/학업 외 활동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학생이 노력한 내용의 동기, 과정, 결과 모두를 분석하여 학생이 지닌 학업능력, 학업태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외부 수상실적을 거론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해 증빙서류는 평가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나요?

진실 아닙니다.

증빙서류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필요할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 중 반드시 증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빙서류 자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그 분량도 3개 항목(1개 A4용지 크기 기준 단면 3쪽 이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해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듀팍) 내용도 평가에 사용하나요?

진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에 사용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소개자료 등입니다. 에듀팍에 기록된 내용은 별도의 평가 자료가 아닙니다. 학생이 밝히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별 주제에 맞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오해 제출 서류는 배점이 있고 가장 높은 배점은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진실 아닙니다.

소위 스펙과 기타 증빙서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오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가 배점이 가장 높은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합평가 방식이란 제출 서류들의 내용 모두를 분석·종합하는 방식이므로 각 서류들의 정해진 반영 비율이 없으며 각 서류마다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며 '종합'이란 표현은 제출 서류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서류평가도 각 제출 서류들의 일정한 반영비율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소개자료 등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분석·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해 서류평가에서 모집단위별로 반영되는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진실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의 성적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교과 성적만을 별도의 공식을 활용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집단위마다 정해진 등급keit란 개념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모든 내용이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교과성취도(내신) 역시 3년간 이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분석합니다. 원점수와 석차 등급으로 표현되지 않는 예술·체육교과의 성취 내용도 반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높게 평가합니다.

오해 서류평가에서 수능 점수가 좋을수록 유리한가요?

진실 아닙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점수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사용합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합격 대상자가 된 학생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등급의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므로 기준 등급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의 획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은 미술대학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된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 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이나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정한 '수능 응시 지정영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수능 응시 여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해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진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원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이수기준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내에서 폭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오해 봉사활동 시간이 많아야 좋은 평가를 받나요?

진실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의 형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배경, 과정 등 학생이 경험한 봉사활동의 내용을 고려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은 종합평가의 일부이며,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IV.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오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과 지원하는 모집단위가 관련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실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희망은 항상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내용은 학생이 지닌 학업능력의 우수성입니다. 우수한 학업능력은 학생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공부한 배경, 과정, 결과를 종합할 때 비로소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내용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특성과 무관하게 평가에 반영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에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교외 활동이나 결과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통해 학업역량을 계발하고 우수한 학업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연구조사활동(R&E 등)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던데요?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 특정한 활동이나 경험을 한 사실만으로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학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실과 학교 안에서 노력한 내용은 그 배경, 과정, 결과가 제출하는 서류에 잘 드러날 때 의미있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학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결과위주가 아니라 과정과 함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해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각 학교마다 계열별 1명씩 지원해야 하나요?

진실 아닙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지원 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로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라는 제한 조건이 전부입니다. 추천 권한은 소속 고등학교장에게 있으며,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해 수시모집으로만 뽑는 모집단위는 정시모집에서 아예 선발하지 않는 건가요?

진실 그렇습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은 수시모집만으로 선발하는 모집단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계학과, 지구환경과학부, 건축학과(건축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미술대학, 교육학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음악대학, 자유전공학부, 치의학과는 수시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다만,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에서 합격자 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악대학을 제외하고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상상이 일상이 될 때까지

식품영양학과 송재원

안녕하세요?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에 합격한 14학번 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때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많이 읽었는데 제가 쓰는 입장이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힘든 수험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두가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돌아보면 저는 고등학생 때 운명론자에 몽상가였던 것 같네요. 물론 합격이 보장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항상 '나는 결국에 잘 될 운명이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생활했어요. 이러한 강한 믿음 덕에 공부가 잘 안되거나 시험 성적이 떨어져도 크게 걱정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자기 암시를 열심히 했어요. 몸은 비록 의자와 한 몸이 되어갔지만 영혼만은 항상 가고 싶은 대학의 캠퍼스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녔답니다. 단순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망상증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미래를 섬세하게 그려보려고 노력했고 그게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마음을 잡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부 습관을 갖는 일이에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집, 학교, 독서실이 있어요. 저는 3학년 때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라.'라는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를 들으며 약간의 강제성과 함께 자습에 항상 참여했어요. 집, 독서실, 학교에서 모두 공부해봤지만 가장 공부가 잘 됐던 곳은 역시 학교였어요. 감독해주시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때 만들어지는 분위기, 이 두 가지가 집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말, 공휴일도 늘 등교하는 습관을 길렀어요. 또한 과외나 학원 수업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2050 학습 동아리와 수업 시간을 적극 활용했어요. 당시에는 자습, 수업 모두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부 아련한 추억이 되었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이 나를 뽑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했어요. 스스로가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나 같은 학생을 뽑고 싶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동아리, 대회, 캠프 등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이러한 활동들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점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저의 부족한 점이 활동에서 기울인 노력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저는 '학생모니터단 정책제안 발표대회'라는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대회에 나갔던 경험에 대해 소개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도 썼고 면접 때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V. 선배가 전하는 글

것에 서투르던 저의 처음 모습을 보여주고 대회를 준비했던 한 달 동안의 노력을 설명했어요. 청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반 아이들 앞에서 연습하고,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 의견,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으며, 팀원들에게 꾸준히 피드백을 받으며 단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갔던 노력들을 진솔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수상실적을 밝히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발표를 잘 끝마쳤던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표능력을 계속 갈고 닦아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식품영양학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대학생활을 하는 현재에도 좋은 밑거름이 될 만큼 스스로를 변화시킨 뜻 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님께도 인상 깊게 들리지 않나 싶어요.

중요시 여겼던 것들 중 또 다른 하나는 '전공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제가 가려는 학과와 관련 있는 활동들을 찾아냈고 작은 활동이라도 식품영양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서 전공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나타냈어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전달하는 봉사도 했었는데 독거노인들의 영양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식품영양학과와 관련된 생각들을 표현했어요. 또한 기본적으로 이 학과에 입학하면 무엇을 배우는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고 어떤 진로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특히 저는 영국의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라는 롤 모델을 제시하며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밖에 학업 외 활동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신선함을 주고자 했어요. 학교 축제 때 선배들과 안무를 구성하여 댄스 무대를 선보였던 일과 체육대회에서 반이 종합 1위를 하는데 일조한 일, 소소하지만 친구들의 생일 때마다 함께 축하해줬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말하며 저의 인격이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도 보여주고자 했어요.

저는 고등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쉬는 시간의 꿀 같은 잠, 체력 유지를 핑계로 했던 푸짐한 식사와 군것질,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동고동락한 친구들과의 추억들, 수능을 앞두고 질리도록 먹었던 초콜릿, 무엇보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후회 없이 노력했던 시간들……. 고등학교 생활은 불안하고 지칠 때도 많지만 모두에게 자신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했던 값진 시간으로 남았으면 해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지금, 예전에는 꿈에 그렸던 일들이 현재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어요. 학기 초에는 주변의 축하 세례와 함께 엠티, 환영회, 새내기 대학 등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지금은 다시 새로운 고민들과 난관들에 부딪히고 있네요. 고등학생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놀기도 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동시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과제나 리포트에 버거울 때도 많고 갑자기 많이 주어진 시간에 방향할 때도 있지만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이 학교에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예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배우는 것도 많고 훌륭한 강연들을 통해 인생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고 있어요. 동아리 또한 굉장히 다양해서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또다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더 넓은 시야와 함께 더 큰 꿈을 가지게 하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은 분명해요. 고등학생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관문을 잘 통과하셔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 자유롭게 꿈을 펼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대로 보여주면 끝

농경제사회학부 진동영

‘서울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면 주변에서 많이들 추천했던 대학교죠? 여러분도 많이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자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등학생이 되어 보니 맞닥뜨린 것은 힘든 경쟁의 현실과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이 시작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자신의 꿈이 작아지고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지만 쫓지 마세요.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늦지 않았으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수시 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재학 중 참 많은 고민을 통해 전공을 선택했고 농경제사회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 전공을 내 분야라 생각하고 어떤 확신을 지니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수시로 가야 할지 정시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죠. 수시는 준비하되 끝까지 정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내신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수능도 역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의 전략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학교 시험 준비도 꾸준해야 하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 주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조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대학 입학에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여러 조언들이 지극히 추상적으로만 들리고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저도 선배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결국 그 이야기대로 따라가는 것이 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말들은 단지 수많은 예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꼭 맞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조언을 적절히 수용하되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1년,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 저는 큰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곧바로 힘든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모의고사나 교과 성적이 노력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았고, 더욱 힘들었던 것은 첫 날부터 오로지 공부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되었는지 갈수록 소극적으로 변하는

V. 선배가 전하는 글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활발한 친구들과거리만 뭉치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탓에 저는 학교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는 그런 아이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답답했고 스스로 변하기 위해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가 1학년 겨울방학 즈음입니다. 지치고 아픈 친구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려 하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을 대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시간이 흐르며 소극적이고 웅크린 제 모습은 언제부터인가 쾌활하고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태도를 바꾸자 답답했던 성적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르지 않지만 제 경험을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기가 제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긍정적으로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2학년이 된 이후에는 학급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친구들과 두터워진 친분을 바탕으로 함께 공부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남들이 좋다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분야에 대해 책을 통해 알아보고 가장 먼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들었을 법한 이야기지만 수업을 충실히 듣고 열심히 반복 학습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전략을 세웠고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과목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통해 공부법을 익숙하게 하였고 성적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의 뿌듯함에 이제는 모든 과목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안 될 거야’라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긍정의 힘을 믿고 먼저 노력부터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꿈이 명확하지 않았던 제가 ‘농촌 사회 발전’이라는 삶의 목표를 갖게 된 데에는 선생님들과의 상담과 저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생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며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성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경험과 관심분야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한 끝에 농촌 문제 해결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인문계 고등학생이 가고자 하는 분야가 아닌 농촌 관련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선택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책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조금씩 농촌 사회와 관련된 서적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외에 새로운 내용들을 익히다 보니 진정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꿈을 갖게 된 후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학습에 대한 명확한 동기가 생겼고 누구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공부’라는 것을 즐기면서 입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민하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알아보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경험의 기회를 통해 다양한 소양을 쌓아가는 과정이 대학생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어려운 활동 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활동이라도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행하건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서울대학교에서 뵙길 바랍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라

건설환경공학부 장재영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되돌아보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제 삶을 들춰보면 저는 딱히 공부에 흥미나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공부를 정말 좋아해서 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서점에서 위인전으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한창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 정석이 되어갈 시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기에, 다른 사람들이 ‘공부’, 즉 ‘학업’으로서는 저를 포기할 때 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신문에서 흔히들 말하는 공부가 즐거워서 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공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방법 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도 있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생활에 무리가 없는 가정에서 누나 둘을 위에 두고서 자랐습니다. 누나 둘은 공부를 잘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유명했고,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께 예의 발라 항상 칭찬을 받았습니다. 딱히 가훈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항상 강조했기에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켰지만, 공부에 영 흥미가 없다 보니 누나들과 성적으로 비교되기도 했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어릴 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던 저였지만, 중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으로 등수를 매기다 보니 전교에서 한자리 등수를 지키던 누나들과 비교되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유난히 싫어했던 사회는 48점을 받아 보았고, 놀기 바빠 시험기간 내내 조는 바람에 시험에서 세 과목의 OMR 카드를 밀려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어머니께서는 지금에 와서 그 때 제가 학업에 뜻이 없음을 알고 공부로서의 길에는 저를 포기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 선생님을 통해서 ‘내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꿈을 가져라’는 말은 하기는 쉽지만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좋은대학교에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커서 과학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등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꿈들이 과연 꿈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면 가지고 있던 꿈을 잃어버리는 것 일까요? 저것들은 흔히들 말하는 ‘목표’이지 꿈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저렇게 쉽다면 (저런 목표를 스스로 다짐하기도 충분히 어렵기는 하지만) 신문이나 다큐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멋있게 나오지 않고, 꿈에 대해서 말하는 책도 더 이상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선생님은 꿈을 가지는 것은 나중에 가져도, 아무리

늦어도 절대 늦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꿈을 가지는 것 대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걸어가는 저만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가 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 모든 것들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안 했던 것은 주변에서 강조했던 그 공부만을 하면서 살기 싫어서였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가지게 될 꿈을, 막상 가지게 되었을 때 제 위치에서 성취하지 못할 때 더 화가 날 것이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그 때 결심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하고, 미래에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그래서 단순한 반발심에 제대로 들지 못했던 펜을 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싫어하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회 과목도, 한번해보자는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선생님의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필기했고 도서관에서 수업을 되짚으며 배운 내용을 외웠습니다. 수학은 문제집을 사서 풀고 다시 풀어가면서 익혀나갔고, 과학은 개념을 이해하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안팎으로 친한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면서 친구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었기에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했기에 큰 힘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배치 고사를 1등을 하며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결과를 얻어냈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은 아니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반발심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다하면서 미래에도 그러기 위해서 이까짓 거 왜 못해내겠냐는 도전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중학교 생활에 후회를 남기지 않았고, 성적으로도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자 제 생각에 확신을 가졌고, 이것이 나의 길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경청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갔습니다.

고등학교는 입학한 순간부터 저희의 삶은 입시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 하는 듯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의 본분이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서야 아마 고등학교 생활의 중요성을 깨우칠 기회를 가지겠지만, 학교는 사회로 나가기 전의 작은 사회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냥 공부와 입시에 미쳐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저만의 길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좋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으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길을 걸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고, 다른 사람에게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과에 전혀 쓸데없다는 교내 글쓰기 대회란 대회를 모두 참가했습니다. 정말 좋아했더니 입상을 어느 정도 했고요. 봉사 활동, 생각보다 많이 안본다 그냥 적당한 해라. 저는 그냥 즐기기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 까지 320시간 가까이 봉사시간을 채웠습니다. 남 앞에 서서 제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고 이끌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반장, 2학년 때는 부회장 3학년 때는 자율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노는 것도 좋아했기에 놀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합격하자 우스갯소리로 곧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 친구도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렇다고 학업에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의 말씀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칠판이 한눈에 들어오고 집중하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새벽 일찍 등교 하기도 했습니다. 놀 때는 놀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절대 미루지 않았고 경중을 따져가며 중도를 지켰습니다.

어느새 수시접수기간이 되었을 때 내신으로 교내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것은 챙겨야 하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생활에 주변인들이 해주는 충고들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연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무언가는 꼭 잡아야 하는 등, 공식이 있을까요? 인생은 자신의 길입니다. 남들이 이래야 한다고, 자신 스스로 믿는 것이라면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의 충고를 들어 그것을 자신의 길로 가는 이정표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길을 제가 꼭 걸어야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즐길 자신이 있는 길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여러분께 맞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저 가고 싶은 길을 가세요.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니 그럴 듯해보이지만 당시에 제가 이것저것 일들을 벌일 때 반대 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제가 입학 멘토가 되어 입학설명회에서 재학생 발표도 하고 이 글도 쓰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고자 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했더니 어느새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가 된 것입니다. 주객을 헷갈리지 마세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오히려 공식입니다.

대신 절대 후회는 하지 마세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진정으로 했다면, 그래서 스스로 즐거웠다면, 그리고 속으로 깨우치는 것들이 있었다면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아무리 빠르게 해도 이미 늦은 단어입니다. 저는 정말 고등학교 살면서 후회 없습니다. 내신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조금 더 친구들과하고 친하게 놀았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후회가 뭐지 알고 싶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1년 뒤로 돌아 갈 수 있다면 갈까?' 대답을 아신다면 후회가 무엇인지도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한 달 뒤에 지금의 여러분께 스스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전으로 갈수 있다면 갈까? 그때 '그렇다'라는 대답이 안 나오도록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구 하나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막에서 그 사내는 너무나도 외로워 가끔씩 뒤를 돌아봐 발자국을 바라보며 걸었다.’

저는 이 시를 고3 때 대학 도서관 화장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공부에 지치면 놀면서 풀고 다시 지치고 하면서도 점점 정신이 지쳐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열심히 달렸나요? 힘들다면 뒤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며 힘내세요. 저는 꼭 서울대라는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24시간으로 인간의 평균 나이를 80세로 잡자면 여러분은 이제 아침 6시. 부지런한 사람이 일어나서 행복한 일상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학업의 레이스가 아닌 남이 원하는 길이 아닌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마라톤을 달릴 준비가 되셨나요?

서울대학교는 여러분들과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입전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권역별 입학전형 설명회, 학교 단위 방문 설명회, 학교 단위 교사 간담회, 지역별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들을 현장에서 만나 소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및 웹진 아로리를 통해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다방면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고교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인재학교'를 운영하여 서울대학교가 지닌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간혹 특정 재능과 수상 경력이 있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내신 성적 등급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평가 방식은 학교 안에서 돋보이는 성취를 이루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경험하기 바랍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듬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의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내 활동 안에서 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들에게 목표의식과 학업동기, 진학에 대한 기대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 교육이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전화 : 02) 880-6974~6 / 02) 880-5022 팩스 : 02) 873-5021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우편번호: 151-742)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